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5.(목) 08:00 배포 2026. 11. 5.(목) 08:00

한-아세안, '문화 지식재산'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협력 모색

- 11. 7. 필리핀에서 '2026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개최,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참여
- 연계 전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문화 지식재산의 가치 확장과 협력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한-아세안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사업(PIC, Partnership for Innovative Culture)'의 일환으로 11월 7일(토), 필리핀 마닐라 아얄라 뮤지엄(Ayala Museum)에서 '2026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포럼과 연계한 전시 '모이고, 이어지는 것들(Gathering Point)'을 아얄라 뮤지엄에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고, 8일에는 뉴월드 마카티 호텔에서 '한-아세안 문화혁신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2026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등은 2019년에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문화교류의 지속성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20년에 시작, 올해 7회째 진행한 행사다.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에서 정부·공공 분야 30명, 산업계 15명, 학계 8명 등 총 53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올해는 '문화 지식재산(IP)'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문화 창작·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아이디어와 창작물 가치의 확장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의 창작 주권과 상상력 중심으로 문화 지식재산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11월 7일에 열리는 포럼에서는 '인간의 창작 주권과 상상력의 가치화'를 중심으로 문화 지식재산(IP)을 둘러싼 과제와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다.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의 정책·산업·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청년들이 문화 지식재산(IP)을 둘러싼 정책 환경부터 산업 현장의 사례, 국가 간 협력, 미래세대의 제안까지 폭넓게 논의한다.

포럼은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책과 산업, 협력, 청년 등 4개 주제별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넥슨코리아 메이플본부 김창섭 부본부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창작과 지식재산(IP) 확장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한다. 정책 분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문화 지식재산(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아세안사무국 조너선 탄(Jonathan TAN) 문화정보국장이 좌장을 맡고, 인도네시아 아리 줄리아노 게마(Ari Juliano GEMA) 지식재산(IP) 전문 변호사, 조지핀 리마 산티아고(Josephine Rima-Santiago) 전 필리핀 지식재산청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지훈 부연구위원이 각국의 정책 경험과 문화 지식재산(IP) 생태계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산업 분과에서는 문화적 아이디어가 콘텐츠와 산업적 가치로 확장하는 과정과 사례를 살펴본다. 태국 파누 아리(Panu AREE) 콘텐츠 감독이 좌장을 맡고, 베트남 미디어 기업 르 그룹(Le Group)의 레 쿠옥 빈(LE Quoc Vinh) 회장, 싱가포르 콘텐츠 제작사 오커 픽처스(Ochre Pictures)의 여 레이 콴(YEO Lay Kuan) 창립자, 미얀마 영화 제작자 피터 얍(Peter Yap)이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경험과 문화 지식재산(IP)의 확장 가능성을 공유한다.

협력 분과에서는 개별 국가와 기관의 경험을 넘어 문화 지식재산(IP)을 매개로 한 한-아세안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라오스 전통예술 민족학센터(TAEC) 공동설립자 타라 구자두르(Tara GUJADHUR)가 좌장을 맡고, 말레이시아 마이크리에이티브 벤처스(MyCreative Ventures) 그룹 자이놀 하킴(Zainol Haqim) 최고경영자, 동티모르 전통직조협회 관계자 디르스 멘드스(Dirce MENDES), 연세대학교 고영경 연구교수가 문화자원의 가치 확장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청년 분과에서는 필리핀 배우이자 가수인 일라이자 칸라스(Elijah CANLAS)가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작자로서 지식재산(IP)을 만들어가는 경험과 시각을 공유하고, 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캄보디아 청년으로

구성된 ‘한-아세안 청년팀’이 사전에 전문가 지도를 받아 발전시킨 문화 지식재산(IP)의 책임 있는 활용과 한-아세안 협력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청년 창작자의 현장 경험과 미래세대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며 문화 지식재산(IP)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포럼 논의를 전시와 기관 간 협력으로 확장

연계 전시 ‘모이고, 이어지는 것들’에서는 포럼의 ‘창작과 상상력의 가치화’라는 논의를 전시의 언어로 확장해, 일상 속 아이디어와 문화적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창작과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크 주스티니아니(필리핀), 레슬리 데 차베스(필리핀), 크리스티나 라밀로(필리핀), 아리 바유아지(인도네시아), 아담 퐁(말레이시아), 라타폰 코키아타쿨(태국), 임하타이 수왓타나신(태국), 김준 총 8명의 작가가 ‘수집(Gathering)’의 의미를 다양한 작품으로 풀어낸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한-아세안 문화혁신 실무협의체(11. 8.)’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의 13개 문화·창의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의 주요 활동과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포럼에서 논의한 의제를 바탕으로 2027년 주요 협력 의제와 기관 간 연계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실무협의체를 향후 지속 가능한 한-아세안 문화기관 교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 지식재산(IP)은 창작자의 상상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 지식재산(IP)에 대한 논의를 넘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기관들이 실제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6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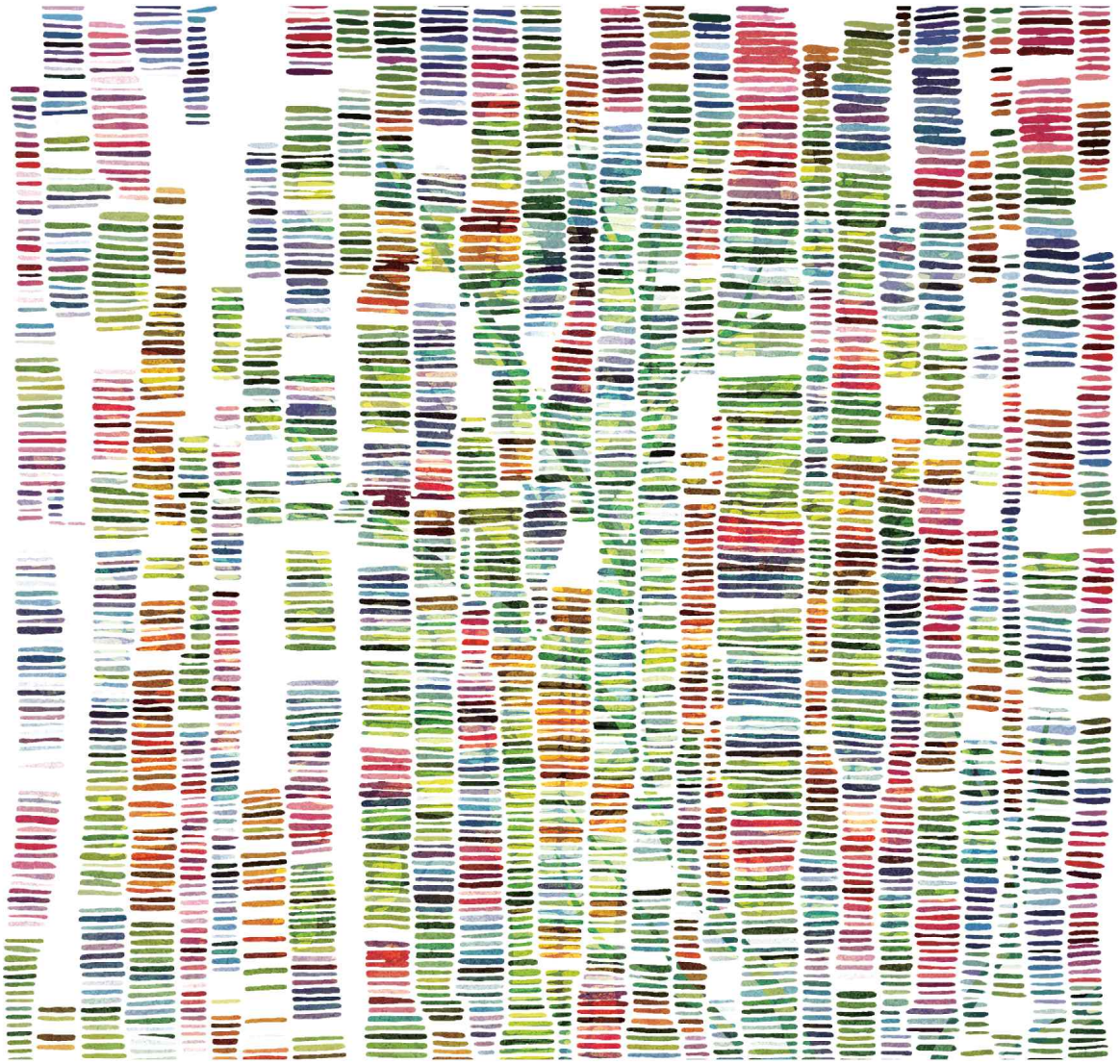
담당 부서	국제문화정책관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장	김현목 (044-203-3331)
		담당자	사무관	김윤아 (044-203-33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2026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포스터**

ASEAN-KOREA Partnership Project for Innovative Culture

ASEAN-KOREA INNOVATIVE CULTURE FORUM 2026



On Human Creative Sovereignty

Shaping the Future of Imagination and Cultural IP

7 November 2026, 10:00–17:00
Ayala Museum, Manila, Philippine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FIC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 ASEAN FOUNDATION